

대행 스님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하십니까, 하나하나 끄달리면서!

어저께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그 후의 말이라든가 모든 이치를 거기에서, 현실 나에게서 모든 만법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중략)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실 때에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거냐? 그것이 한계가 없는 거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점의 마음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라는 이 한계가 없는 한 점은 한 점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 있으면서도 바로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세울 수가 없는 소소영영한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저께 접착 얘기를 했죠. 접착제는 자연 광대무변한 접착젭니다. 그 접착제는 생사윤회에도 쓰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생활 속에서도 지금 쓰여 나가는 겁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고, 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하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접착제로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서로 한 그 말은 온데간데없는 겁니다. 접착제는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동적인 걸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만날 때는 어머니 만나는 대로 내가 거기에 삼각으로서 원형을 이루고, 이 삼각심이 원형을 이루고 지금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뜻도 그러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었지마는 행도 그렇게 나오고 말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금방 어머닐 비켜나서 아들을 만나니깐 아버지의 행세로 나옵니다. 요 묘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자동적이면서도 진리적이면서도 이것은 정말 광대무변한 여러분의 묘가 아니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도 달라지고 행도 달라지고 아,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오신통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무진법문이고 그대로 무진설이고 그대로 무진행이고 그대로 무진 삶의 생동력이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광대무변한 뜻을 발휘 못 하고 계발을 못 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자기를 방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끌고 나온 자기 주인공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름 자체가 아닌 근본을, 즉 말하자면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행위다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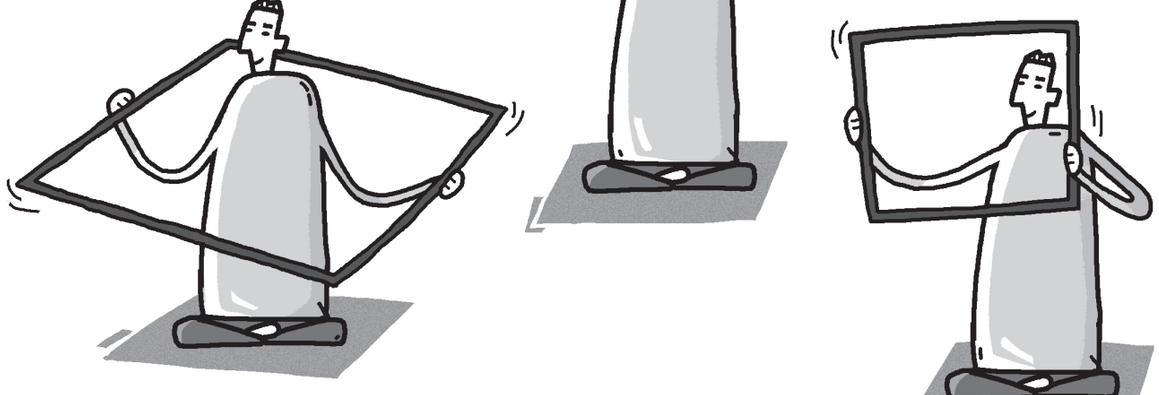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누가 그 무진, 그 광대무변한 법을 "얘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서 뜻으로써 길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길잡이는 자긴데. 그리고 걷는 사람도 자기고! 콩씨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무는 자기가 콩나무인 줄만 알아요, 네? 콩이 콩나무가 됐는데 콩나무는 콩씨가 제 나무에 붙은 줄 모르고 작년에 씨 심은 그 콩씨를 찾고 있거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의 문제에서 우리는 여섯 번째에, 내가 판단을 하고서 개시한다. 개시한다는 생각이 없이 스스로 자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 뭐, 한다 안 한다가 없이 스스로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말을 안 해 드리고는 또 그 뒤의 말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길러지는 사람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걷는데,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석처럼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머니라는 인정, 그게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네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인간이라는 자석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는 그 마음이 벌써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철을 모르고, 어른이라도 철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철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자기 중심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패배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난 살아야겠어.' 하고선 잘못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배고프니까 저지릅니다. 무댓방 저지릅니다. 죽입니다. 또 착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 삶이 국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국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이 야단들을 하죠.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그 오신통이라는 자체는 내가 자성을 깨달아서 주인이 돼 가지고 오신통을 내가 부려야 말이지 만약에 내가 내 안의 자성을 찾지 않고 바깥으로만 만날 신을 찾아 돌아다니고 학문으로만 가지고 저거 하고 그렇게 집이 빈 사람들은 항상 끄달리게 돼 있거든. 항상 끄달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르고 저기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법으로나 무법으로나, 하여튼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생명들이나 보이는 생명들이나 모든 것에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끄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가눠 가면서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생활을,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만 굴리고 내 안에서 배신하지 말고, 자기 주인공을 믿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고…. 모두 거기서 나고 드는 것인데, 만법이 일심에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이시여! 아무개 신이시여! 용신이시여! 관세음 신이시여! 무슨 신이시여!'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내 신도 잊어버리거든. 허허허…. 아니,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내 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신을 근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가는 내 신발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 신발이 아니라 내 신(神)을 말입니다, 자신(自神)을. 자성신.

그런데 그 말을 하려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신까지 이거 괜히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주인이 없는 집은 귀신, 유체, 유령, 세균, 윤회, 유전 이런 것이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뚱이의 그 모든 생명들이 자기 분야 분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지금 지탱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주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내 이 생명체도 다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그런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삼차원에 기준을 둔다면 중세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삼차원이기 때문에 이차원이나 일차원에 있는 거를 갖다가 막 집어다가 바로 실험대에 올려놓고서 실험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차원 세계라면 삼차원에 있는 거 막 붙잡아다가 실험대에 안 올려놓겠습니까? 이 모두가, 만약에 오차원, 육차원, 칠차원 이렇게 차원이 있는 탑이 있다면, 십이층 탑이 있다면 그걸 한데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바로 한 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십이층에서 어떤 것이 층층이야?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공했다! 그 하나도 없다! 물감을 여러 가질 갖다 놓고 "어떤 게 진짜 물감입니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물감입니까? 물감이 지금 열여덟 가지가 있다면 열여덟 가지에서 "진짜 물감이 어떤 것입니까?" 한다면 다 진짜 물감인데 어떤 거를 진짜 물감이라고 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이것은 전부 공했다."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세울 수 없으니까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차원이, 계단이 있으면서도 계단이 없는 원인은 아까 물감 얘기 했듯이, 그러한 까닭에 그런 차원이 바로 평등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평등이면서도 그 차원은 엄연히 있고, 우리 살림살이의 차원은 엄연히 있어서 소소영영하게 우리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